

# 僞私放奢의 Nash 균형



글·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하바드대 정책학박사  
감사원·재무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나라가 어지럽다. 가짜와 위선이 횡행하고, 허풍과 거짓말이 통용되고 있다. 망신은 순간이고, 실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예를 들어보자.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떠들썩하던 줄기세포 연구가 ‘말짱 황’으로 드러나고, 자기표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교육부총리는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 그리고도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는 당사자들의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군 철수를 줄곧 외쳐온 교수의 아들이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것은 차라리 희극이고, 대선 후보 아들들의 병역문제를 맹비난하던 공영방송 사장도 알고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민족·평화·반핵을 들먹이며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이 정작 북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도 아이러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연루된 대리번역과 이중번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가난하다고 정부에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는 두 대씩 굴리면서 열흘이 멀다 하고 해외를 들락거리는 사연은 밝혀질 수 있을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집회에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온 배우들이나, 인사비리를 감시한다면서 돈을 받고 직원 채용에 관여한 노조 집행부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형사피의자인 김대업을 수사관으로 둔갑시킨 것은 소설이나 나올법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작을 주도했던 장본인은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2급 공무원 승진에는 음주운전 경력조차 걸림돌인데도, 위장 전입, 연금 탈루, 불법선거자금 수수, 편법 증여 등은 국무위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모순 역시 새롭게 선을 보였다. 포털사이트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횡행하고, 주문만 하면 주민등록증, 졸업장, 심지어 토익성적표까지 위조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편리한가!

보건의료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진료비 허위·과장청구는 여전하고, 본인부담금 환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처방전도 없이 택배로 배달되는 전문의약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성분과 국적 불명의 일반의약품과 담배도 덩달아 범람하고 있다. 옥석이 뒤범벅된 녹용에 얽힌 진실게임의 실체는 무엇이며, 생동성시험 결과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난자매매와 대리출산도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

식약청 연구용역과제들 태반은 단독응모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발주됐고,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해명은 웅색하기 그지없다. 이웃 일본에서는 벌써 사라진 ‘민관접대’와 ‘관관접대’의 먹이사슬 악습이 보건복지부의 해외출장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브루셀라 환자가 143회나 헌혈을 했는가 하면, 하루에도 두 차례나 헌혈한 사람까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공짜로 진료받은 사람들 중 연소득 5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이 수십 명이나 되고, 10억원대 재력가가 기초생활보장자로 등록돼 의료급여 혜택까지 누리고 있기도 하다.

너무 장황했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의 ‘거짓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표리부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도 거든다. 이를테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건강부회요. 아전인수다. 흡연율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데, 그렇다면 담배판매량이 늘어난 까닭은 무엇이며, 담뱃값을 안 올려도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 밖에 “흡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담뱃값이 아까워 금연을 결심한다”, “선진국보다 담뱃값이 싸다”, “어느 나라도 담뱃값을 낮춘 적은 없다”,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유익하다”, “담뱃값 못 올리면, 건강보험료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모두 거짓·과장·협박에 불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니, 서민에게는 미안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이라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해야 한다.

후한말(後漢末)의 석학 순열(荀悅)은 어지러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쓴 『신감(申鑑)』에서 나라를 망치는 4가지 병, 곧 사한론(四患論)을 주창했다. 첫째 거짓과 속임수의 위(僞), 둘째 사리사욕을 밝히는 사(私). 셋째 무절제의 방(放), 넷째 분에 넘치는 사(奢)를 손꼽았다.

앞서 실시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우리는 위사방사(僞私放奢)의 수준이 Nash의 열등균형에 귀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다자간 죄수들의 갈등' (multi-person prisoners' dilemmas) 게임에서 대다수가 사의 때문에 공익의 잠식에 탐닉하는 '사회함정'에 빠진 셈이다. 사회함정에서는 누구도 남보다 앞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행을 어기면 자신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죄의식도 이완되어 좀처럼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충격이나 대중요법으로는 균형에서 잠시 이탈할 수 있을 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함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Nash의 열등균형에서 벗어나려면, 위사방사(僞私放奢)의 대세에 역행하는 원칙주의자(hard core)의 수를 분수령(critical mass)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 위사방사(僞私放奢)는 민감한 상호의존성과 자기강화성을 띠므로 입력단계의 미세한 차이가 출력단계의 엄청난 격차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물길을 되돌리는 선구자가 되어야 하나? 바로 이 잡지의 독자들이다. 양심적인 전문가와 지식인층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KHA**